US Market Analyst 고선영
02-3770-3525 / sunyoung.kou@yuanta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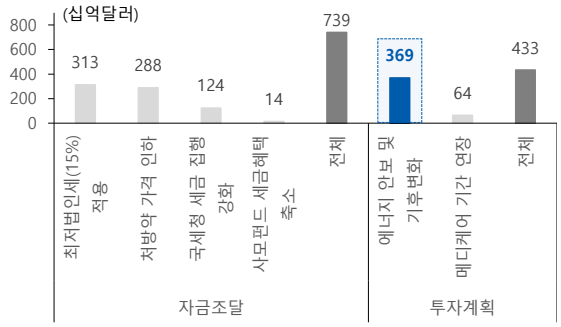
2022.8.9

IRA 법안 승인, 시선은 태양광 발전으로

1. IRA 법안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 지난 8/7일 Build Back Better(BBB) 법안의 수정안 격인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IRA) 상원에서 승인.
-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전체 조달자금 절반 할당, 지원의 약 2/3 가량은 세액공제 형태로 진행.
- 장기 인센티브 보장, 친환경 에너지원들의 발전 용량 확대로 이어질 것. 태양광은 IRA 내 민간/산업 지원 대상에 모두 포함.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세부 투자계획을 보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절반(49.9%) 가까이 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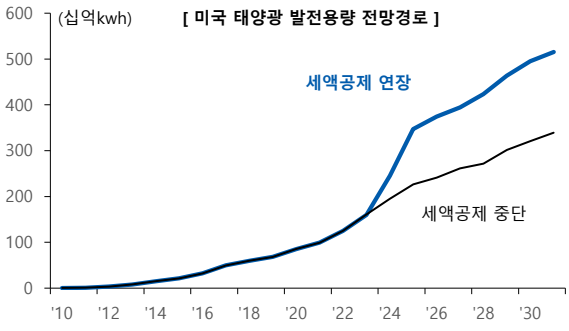


자료: 상원 민주당(Senate Democrat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시장의 시선은 태양광 발전 산업으로

- 수주 내 IRA 법안 확정 가능성, 미국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호조 예상되는 시점.
- 최근 한달 동안 First Solar(FSLR), Enphase Energy(ENPH) 등 미국 태양광 발전 밸류체인 내 주요 종목 돋보이는 수익률 기록.
- 미국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Enphase Energy에 대한 주목 필요. 내수 비중이 높아 발전 수요 증가 수혜 직접 기대 가능

IRA 법안 확정 시 태양광 발전용량 증가 가속 예상, 정책 기대감은 관련 종목 수익률로 이어졌던 모습



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IRA 법안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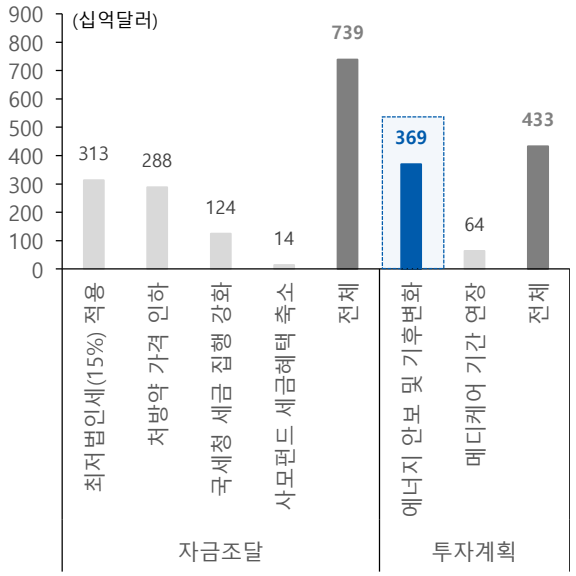
지난 8/7일(현지시간) Build Back Better(BBB) 법안의 수정안 격인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IRA)이 상원에서 승인되었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후 바이든 서명까지 큰 잡음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전체 조달자금의 절반 수준인 $3,690억이 할당되었으며 '23년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 지원의 2/3 가량이 세액공제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주도의 공제 혜택은 정책 방향에 따라 연단위로 갱신되는 특징이 있는데 IRA의 경우 10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된다는 특이점이 있다. 장기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만큼 향후 관련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유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친환경 에너지원들의 발전 용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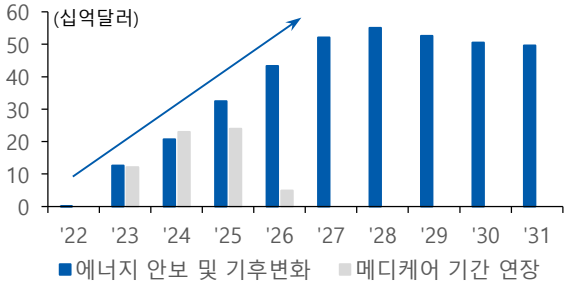
그 중에서도 태양광의 경우 IRA 법안 내 민간 및 산업 지원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있다. 이는 여타 에너지 발전원 중 단가(태양광 $36/MWh vs 풍력 $38/MWh)와 설치기간(태양광 2년 vs 풍력 3~4년)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가장 효과가 기대된다는 정부 당국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차트1]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세부 투자계획을 보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절반(49.9%) 가까이 할당



자료: 상원 민주당(Senate Democrat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IRA 에너지 관련 투자는 향후 10년('22~31년)에 걸쳐 집행되며 대부분 세액공제(Tax Incentive) 형태로 진행



IRA 친환경 부문 주요 항목	세부내용
소비자 비용 절감 (Lower Consumer Energy Costs)	▪ 에너지 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환급 ▪ 민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세액 공제**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치, 전기 난방 등) ▪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
에너지 안보 위한 제조업 지원 (Energy Security & Manufacturing)	▪ 친환경 에너지 밸류체인 관련 **세액 공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생산 등) ▪ 제조시설 친환경 발전 설치 **세액 공제** ▪ 전기차 생산업체 지원금

자료: 미국 의회예산처(CBO), 상원 민주당(Senate Democrat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시장의 시선은 태양광 발전 산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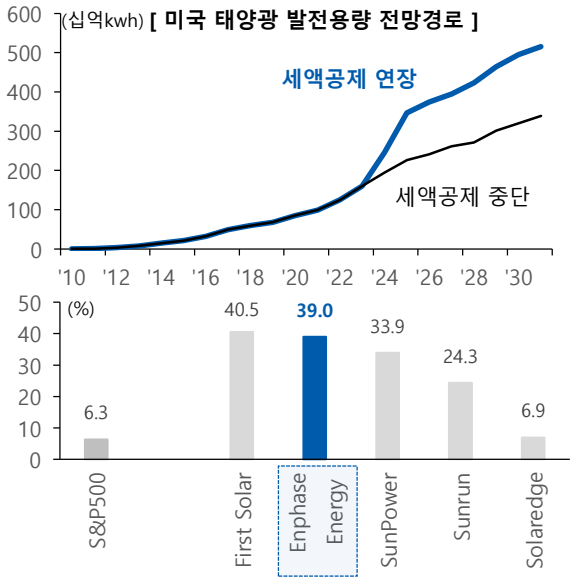
향후 수주 내 IRA 법안 확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호조가 예상된다. 이미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7월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된 친환경 에너지 지원 법안이 승인될 경우 미국 내 가정용/산업용 태양광 발전 용량 증가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 한달 동안 First Solar(FSLR, +40.5%), Enphase Energy(ENPH, +39.0%)를 비롯하여 미국 태양광 발전 밸류체인 내 속한 주요 종목들 모두 돋보이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vs S&P500 +6.3%).

그 중 미국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Enphase Energy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동사의 경우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마이크로 인버터의 주 생산업체로 전체 매출에서 내수 비중이 높아('21년 80.2% vs Solaredge 40.0%) 미국 본토 내 가정용 태양광 발전 수요 증가 수혜를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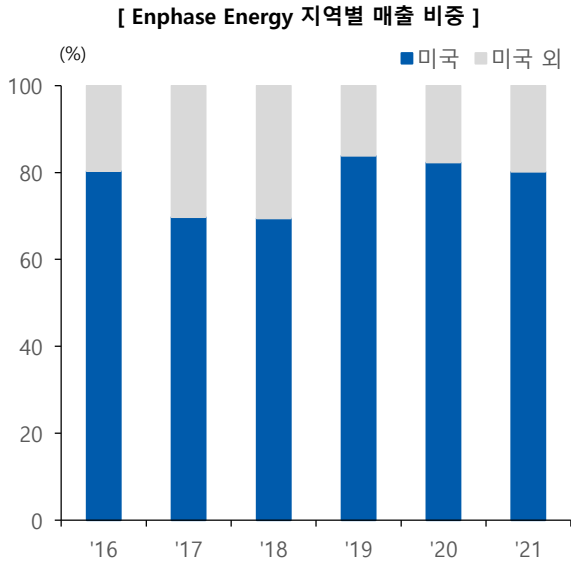
향후 미국 내 가정용 태양광 시장의 추가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가정용 태양광 설치 수요가 큰 유럽을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Enphase Energy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차트3] IRA 법안 확정 시 태양광 발전용량 증가 가속 예상, 정책 기대감은 관련 종목 수익률로 이어졌던 모습



자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Enphase Energy(ENPH), 내수 비중이 높아 미국 가정용 태양광 발전 수요 증가 수혜 직접 입을 종목



자료: Enphase Energy,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